

## 대한민국 결핵 제로 결핵연구원과 함께하면 결핵퇴치 문제없어요!

결핵,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 전염병이다. 매년 새로운 환자가 3만~4만여 명이나 발생하고 사망자도 2,300여 명에 이른다. 우리 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그간의 성공적인 결핵퇴치사업으로 분명히 결핵관리 모범국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핵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전염성 질환 중 모두 1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이에 결핵연구원 측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광범위 내성결핵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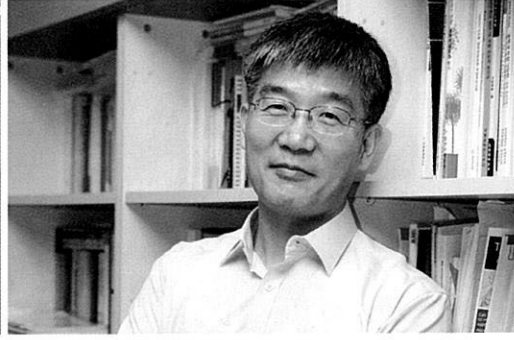


결핵연구원은 1970년 설립 이후 한국의 중추적 결핵연구기관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써,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결핵 요원 교육훈련, 결핵 진단검사 등의 사업을 통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보건 의료행정 중심지가 조성된 충북 오송에 위치하면서, 학계 및 의료계와 협력으로 결핵 환자 발견과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곳 결핵연구원 측이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건강한 국가라는 슬로건과 함께 온전히 40여 년을 달려온 결핵연구원! 이곳에서 “대한민국 결핵 제로”를 외치는, 결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핵심부서 5인방을 직접 만나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번뜩이는 눈빛과 프로페셔널한 몸짓으로 전하는 결핵 제로 프로세스를 알아보자.



결핵연구원 부서별 회의



김희진 결핵연구원장

결핵연구원은 크게 연구행정과 및 연구개발부, 교육기술협력부(교육훈련과/국제협력과), 진단검사의학부(진단검사의학과)로 구성돼 있다. 부서별 업무 및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개발부에서 결핵연구자원 확보(결핵연구자원은행)와 결핵균주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자역학센터), 결핵 예방 대책 마련(국책연구), 향후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부의 교육훈련과에서 취약계층 결핵관리, 군부대 결핵관리, 국내교육, 결핵 복약 확인치료 사업을, 국제협력과에서 외국인 교육 훈련, 국제 학술 교류, 국가 결핵관리사업 이전(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부에서는 보건소 결핵균 검사, 일반 병·의원 수탁검사, 결핵균 검사용 배지제조, 보건소 기술 훈련, 객담도말검사(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5인방은 운이 좋게도 인터뷰할 기회가 닿은 연구개발부의 이지혜 직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안병철 계장, 교육훈련과 이진범 계장, 교육기술협력부 오경현 부장, 연구행정과의 이원재 주임이다.

#### 찰칵찰칵, 5인방 결핵퇴치 프로세스



**연구** 개발부 이지혜 씨는 결핵균이 떴다 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몸짓과 큰 눈망울에서 예리한 눈빛을 내뿜으며 결핵 균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시작한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결핵 균주의 genotype 분석 및 분류하는 이 과정은 국내 유일 결핵 균주 DNA 타이핑을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결핵의 전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 좋은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지혜 씨. 분자역학 분야 연구에 성과를 일궈냄은 물론 선배에게 누가 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오늘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도 우울한 날이 있다. 실험과정에서 본 실험에 앞서 진행되는 전처리 과정에서 간혹 가다 계절 혹은 제조시약 등에 영향을 받아 실험의 결과가 흐트러질 때라고 하니, 그런 날은 일찌감치 눈치 채고 그녀를 살짝 다독여주는 것도 좋겠다 싶다. 그녀가 전하는 결핵퇴치 제 1단계는 바로 규칙적인 식사다. 이를 통해 얻는 영양섭취함량 기준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한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로 국민 모두가 함께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요!”



결핵연구원 직원들이 함께한 기념촬영



**진단** 검사의학과 안병철 계장은 이렇게 발견된 결핵균의 내성 검사(혹은 약제감수성 검사)를 한다. 결핵균은 여러 가지 항결핵제에 대해서 용이하게 내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적절한 결핵치료를 위해선 정확한 내성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핵치료사업의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BSL3(생물안전3등급실험실)의 음압상태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실험에 임해야 하는 일이기에 체력적으로 무척 힘이 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안 계장은 노력을 쉬이 하지 않는다. 이는 그 뿐만이 아니다. 부서 직원 모두 검사의 숙련도와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세계 최고의 결핵균 약제감수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결핵연구원을 만들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가 전하는 결핵퇴치 제 2단계는 바로 정확한 약 복용이다. 결핵은 사라진 병이 아닌 잊혀진 병으로, 아직도 매년 3만 명가량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전염병이라고 설명하는 그는 “은 국민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퇴치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 본인의 건강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확한 약 복용을 통해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교육** 훈련과 이진범 계장은 결핵감염률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 및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와 교육 등을 수행한다. 교육대상은 주로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와 결핵환자, 보호자, 그리고 일반인이다. 결핵 관련 상담 업무를 통해 결핵의 뿌리를 뽑겠다는 기세로 임무에 임하고 있다. 20년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수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보람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가 전하는 결핵퇴치 제 3단계는 환자 자신의 의지다. “국가지원과 더



불어 일반 국민의 결핵 예방 생활이 결핵 조기 퇴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이진범 계장. 그녀는 자신이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여 결핵 조기 퇴치를 앞당길 것이라는 높은 포부를 내비쳤다.

**교육** 기술협력부 오경현 부장은 한국의 국가결핵관리프로그램 지원사업, 역학연구 및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결핵은 주요 보건 이슈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협력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그는 국가결핵퇴치와 더불어 국제결핵퇴치에 기여할 수 있어 일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전한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국내결핵퇴치 및 국제결핵퇴치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결핵퇴치 사업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건 당면 문제”라며, 제 4단계로써 국민의 관심과 거시적 협력을 제안했다. “국민 모두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 범위를 좁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행정과 이원재 주임은 결핵연구원들의 예·결산을 돕고 사업계획 관련 편성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한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결핵전문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결핵과 관련된 많은 정보 및 경험을 체득하고 터득할 수 기회와 장이어서 뿌듯하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처음 연구원으로 발령이 났을 때 결핵연구원만의 특별한 업무환경 때문에 낯설었으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김희진 원장을 비롯한 각 부서 부장과 과장들이 많이 격려해준 덕분에 지금은 누구보다도 업무영역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그다. 그는 독자를 향해 모두를 대신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결핵협회를 믿고 결핵과의 싸움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을 때 결핵은 좀 더 빨리 우리들의 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

결핵균으로부터 국민, 나아가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그날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는 이들. 그들은 최전방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며, 미래를 준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프로페셔널한 정신과 결핵 퇴치를 향한 국가적 사업 안에서의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밝고 건강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변함없는 관심이 뒷받침돼야 성공 가도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노고에 힘찬 지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와 내 주변의 건강을 챙길 때다. †